

SK Energy Snapsho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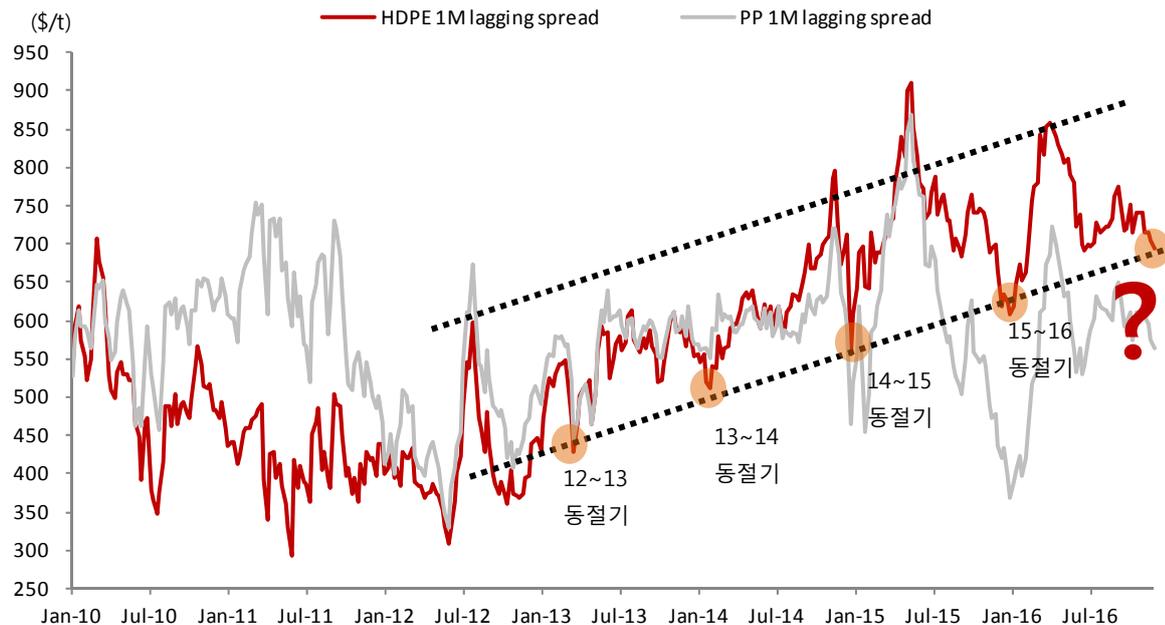


“대세” PE의 추세이탈? 아님 단순 비수기?



PE spread가 하방을 깨고 이탈할 경우에는, 2018년까지 공급
우상향 추세 감안 시 “up-cycle 종식” 우려감 더욱 커질 것

2010년 이후 HDPE와 PP의 주간 1M lagging spread 추이



자료 : Platts, Cischem, Bloomberg SK증권

- 지난 2013년 이후 화학 호황을 견인했던 “대세”인 HDPE 1M lagging spread가 금주도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. 그러면서 올 해 이후 하반기 이후 최저수준 도달하게 되었네요
- 원인으로서는 북미/브라질 물량 유입 + 동절기 비수기 대비 re-stocking 마무리(中 재고충분) + 인도 화폐개혁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 + 중국 대런 PE 선물시장 하락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
- 현재 spread는 2013년 이후 지속되었던 추세 우상향 spread의 지지선에 걸친 모양새입니다
- 아직 선부른 판단은 어렵죠. 과거에도 동절기 비수기 때 지지선에 닿는 양상이 있었으니까요. 다만 올 하반기 이후 2018년까지 추세적 공급증대에 놓인 PE이기 때문에, 이번에 만약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“화학 up-cycle 마무리 국면”에 대한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



Compliance Notice

* 작성자(손지우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*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*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* 종목별 투자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투자판단 4단계 (6개월 기준) 25%이상 → 적극매수 / 10%~25% → 매수 / -10%~+10% → 중립 / -10%미만 → 매도